

동체대비 발원 자비행... 4년만에 네팔학생 1백명 후원

향운사 한국자비공덕회, 본지 보도 이후 수혜자 크게 증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모은 보시금으로 네팔 어린이들의 학자금을 후원하는 한국자비공덕회(회장 명조)의 학자금 수혜학생이 지난 해 말 100명을 넘어섰다. 4년 전 결성 당시 후원 학생 1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본지가 2012년 10월 한국자비공덕회 관련 기사(910호 10월 17일자 A7면 보도)를 소개한 것도 후원자 및 수혜자 증가에 한몫했다.

한국자비공덕회는 “이 모임은 명조·지상 두 비구님 스님과 10여 명의 신도들이 만든 단체로, 처음 모금을 시작할 때는 후원학생이 6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0명의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며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후원에 동참한 분들 덕분에 네팔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자비공덕회는 향운사 주지 명조 스님과 지상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된 작은 봉사단체다.

10여 년간 심장병으로 투병을 해온 명조 스님은 아직도 심장박동기를 달고 생활하고 있지만, 남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두 스님은 수유리에 있는 가정집을 개조해 법당 겸 숙소로 사용하면서 뜻있는 신도들과 함께 2009년 6월 ‘남을 위해 기도

하는 모임’인 한국자비공덕회를 창립했다.

한국자비공덕회는 매월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향운사 법당에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법회를 열고 있다. 처음 법회를 열었을 때 모인 보시금은 20여만원, 회원들은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후원대상을 찾던 중 네팔 어린이를 위한 학자금을 후원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자비공덕회는 “네팔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한 달에 1000루피(15,000원 상당)의 생활비가 없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다.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탓에 네팔 어린이들은 돈을 꺼거나 아르바이트를 해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네팔 어린이들의 실정을 주한 네팔관광청한국사무소장 케이피 시토올나 씨로부터 전해들은 회원들은 2010년 새 학기부터 12명의 어린이를 선정해 12년간 매월 1000루피의 학자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자비공덕회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1회성으로 끝나는 후원보다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입학하여 고등학교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모은 보시금으로 네팔 어린이들의 학자금을 후원하는 한국자비공덕회(회장 명조)의 학자금 수혜학생이 지난 해 말 100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한국자비공덕회 회원들이 후원하고 있는 버드러컬리학교 학생들.

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본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자비공덕회 회원들은 각자 가정에 보시함을 비치, 매일 기도를 하며 그날 하루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해 정성껏 후

원금을 보시함에 넣는다. 그리고 모아진 성금을 매월 기도법회에 참석해 전달하거나, 사정상 법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정성어린 기도가 통했는지, 한국자비공덕회 회원 수도 한두 명씩 점차 늘게 됐고, 보시금도 더 모이졌다. 한국자비

공덕회는 보시금이 늘어나는 대로 후원 학생 수를 매년 늘려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늘어난 후원학생 수가 2013년 11월 말 100명을 넘어섰다.

현재 후원을 받는 아이들은 네팔 동부 끝칸첸중가 기슈 자바 코하바라(Jhpa Kohabara)오지에 위치한 버드러컬리학교

인근 마을에 있는 학생들로, 초·중고학생 70명, 전문대학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한국자비공덕회는 2010년 10월 회원 20여명이 불교성지순례를 하던 길에 컴퓨터 10대를 모금해 이 학교를 방문 기증하기도 했다. 컴퓨터가 단 한 대도 없던 학교 측에서는 허름한 창고를 개조하여 컴퓨터 교실을 열었다.

그러나 버드러컬리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전문대학을 포함해 1000여 명이 넘는다. 때문에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다.

자비공덕회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네팔 오지 어린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컴퓨터 모금운동을 별도로 벌이고 있다. 30여대의 컴퓨터를 목표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목표액이 달성되면 내년 말 경 네팔 현지 학교에 전달 할 계획이다.

명조 스님은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비 실천 행으로 더 많은 네팔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비공덕회 후원: 국민은행 354601-04-080007 (예금주: 자비공덕회) 홈페이지: www.kjb.or.kr (02)905-7175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주노동자들, 새해맞이 국기계양식 열어

꿈을 이루는 사람들,

1월 1일 국기계양식 행사 개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갑오년 새해맞이 국기계양식 행사가 열렸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대표 진오)은 1월 1일 구미마하이주민센터 앞 잔디마당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이주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국기계양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새해를 맞이해 각 국가별 국기를 계양함으로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외국인심터장인 간헐라 산프시리 스님은 “구미에는 공단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은데 특히 일할 때 안전에 유의하며 다치거나 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심터 내 입소자인 란월라(스리랑카) 씨는 “올 한해에는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좀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국기 계양을 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살고, 요즘 한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빨리 회복돼 모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센터 내 법당에서 이주노동자들 법회와 국가별 공동체 모임을 여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2014년 한 해의 시작을 좀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열었으며 이주노동자 간의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사기증진을 높여

한국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폭력과 임금체불,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따뜻한 겨울나기 등 이주민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 마하이주민심터를 경북 구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나는 기자

태고종,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참

1월 2일 시무식에서

희망등록 신청서 104장 전달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편)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전달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1월 2일 태고종 총무원사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접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그 동안 모은 신청서까지 총 104장을 일면 스님에게 전했다.

도산 스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기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생명나눔 실천에 함께 하자”고 밝혔다.

일면 스님은 “2014년 새해를 맞아 즐거운 전달식을 마련해 주신 태고종 모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을 풀고 많은 분들이 인식전환에 함께 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불기 2558년 신년하례와 시무식에는 태고종 원로회의장 덕화 스님과 부의장 지족 스님, 원로의원 삼학 스님, 중앙종회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사진 왼쪽)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편 스님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104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장 혜공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호법부원장 상묵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태고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이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인 혜공 스님의 공로가 컸다.

혜공 스님은 전국 승려연수교육에서 장

기기증의 개념, 희망등록 방법, 실제 기증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설명을 들은 스님들은 각 사찰에서 불자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0명 이상 추천한 공로로 혜공 스님을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에 현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나는 기자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짠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